

CLUBD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Spring | 2021



클럽디 거창 풍경





경남 거창 단 하나의 골프장 '클럽디(ClubD) 거창' 고객 맞이 분주

- 본격 골프철 앞두고 코스 퀄리티 개선 '박차'...천혜의 자연을 품은 정규 퍼블릭 27홀 코스



곽희남 클럽디 거창 총괄 지배인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Platform)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 네번째 골프장인 클럽디(ClubD) 거창이 본격적인 골프철을 맞아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클럽디 거창은 경남 거창에 있는 단 하나의 정규 퍼블릭 27홀 코스를 갖춘 골프장이다. 지난해 11월 오픈한 이후 현재 최상의 코스 퀄리티 및 차별화 된 서비스를 통해 골프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럽디 거창 27홀의 전장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9,588m(10,485yd)로 블라인드 홀이 없는 장점이 있다. 코스별로 EAST코스(3,265m, 3,570yd)는 시원한 장타를 원하는 골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WEST 코스(3,117m, 3,408yd)는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코스로서 곳곳에 숨겨진 장애물을 극복하며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SOUTH 코스(3,206m, 3,506yd)는 시원한 비거리를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홀 마다의 느낌이 전혀 다른 흥미로운 코스로 디자인됐다. 클럽하우스 및 라커룸 등 편의시설은 모던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여성 고객을 위해 세련된 파우더룸도 설치됐다. 또한, 클럽디 거창은 거창 지역민 할인, 조식 이벤트, 포토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클럽디 거창은 거창IC에서 약 15분 거리로써, 대구, 창원에서 1시간이 걸리는 편리한 접근성도 갖췄다.

한편, 클럽디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이도(YIDO)는 현재 경남 클럽디 거창을 비롯하여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 보은(18홀), 속리산(18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클럽디 금강(36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총 4개 사업장, 99홀 규모의 골프장 코스를 전문 운영관리하고 있다. 향후 경기 파주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의 서원힐스와 협업하여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대회 개최 등 국내 골프 문화를 지속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곽희남 클럽디 거창 총괄 지배인은 “감악산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클럽디 거창을 방문하신 고객들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여 골프의 재미를 더욱 느끼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거창군과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올라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 | ClubD MAGAZINE



클럽디-삼성웰스토리, 골퍼 입맛 사로잡기 위해 '맞손'

- 제1회 조리경진대회 개최... '돌미나리 꽃게탕·불고기 볶음밥·어묵고로케' 등 신규 메뉴 개발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Platform)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 클럽 브랜드(ClubD)와 식음 서비스 전문회사인 삼성웰스토리(Welstory)가 골퍼들의 입맛 사로잡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클럽디와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월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ClubD) 속리산에서 조리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리경진대회는 충북 보은의 클럽디 보은과 속리산, 전북 익산의 클럽디 금강, 경남 클럽디 거창 등 각 4개 골프장 조리장들이 신규 브랜드 메뉴 런칭을 주제로 각 3가지 메뉴를 직접 개발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20년 이상의 골프장 운영 경험이 있는 각 골프장 총괄 지배인을 비롯하여 운영 팀장, 캐디 등이 참가하여 평가했다. 이번 조리경진대회에선 박호철 클럽디 속리산 조리장이 개발한 '불고기 볶음밥(단품 식사)'과 '어묵고로케(테이크 아웃)', 김민섭 클럽디 보은 조리장이 개발한 '돌미나리 꽃게탕(4인요리)'이 최우수 메뉴로 선정됐다. '불고기 볶음밥'은 보은 지역의 특산물인 대추과 소고기를 활용하여 속리산 모양을 형상화 했으며, 골퍼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인 단백질 섭취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됐다. '어묵고로케'는 라운딩 중 테이크 아웃 가능한 메뉴로 막걸리나 맥주 안주로 제격인 어묵을 주재료로 출출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메뉴로 개발됐다. '돌미나리 꽃게탕'은 봄 제철인 꽃게와 미나리등 여러 가지 재료로 장시간 푹 끓여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선사한다. 특히 꽃게에 함유된 키토산과 피부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핵산' 성분을 섭취하여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골퍼들의 지친 피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클럽디와 삼성웰스토리는 3월부터 신메뉴 적용을 통해 골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며, 퍼블릭 골프장의 'Destination(종착지)'을 추구하는 클럽디의 철학을 담은 차별화 된 메뉴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한편, 이번 조리경진대회 에서 '서빙로봇'과 골프장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ICT스마트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글 | ClubD MAGAZINE



불고기 볶음밥



돌미나리 꽃게탕

클럽디 거창 1기 신입 캐디 정유지(28)를 소개합니다!



정유지 클럽디 거창 캐디

‘골퍼의 조력자’, ‘골퍼의 그림자’, 바로 캐디다. 골프를 칠 때 캐디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캐디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날의 스코어는 물론 골프의 재미가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인함과 서비스 정신이 캐디들에게는 요구되기도 하는 이유다. 경남 거창의 유일 골프장인 클럽디(ClubD) 거창에 입사한 1기 새내기 캐디로 선발된 정유지(28)캐디를 만났다.

ClubD: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유지 캐디(이하, 정 캐디): 저는 올해 28살 클럽디 거창 1기 신입 캐디 정유지입니다. 캐디로 일한 지는 5개월 됐습니다

ClubD: 클럽디 거창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정 캐디: 우연히 구인공고를 봤는데요. 사실 신입 캐디를 뽑는 곳이 없는데, 클럽디 거창에서 신입 캐디를 많이 채용한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집도 여기서 1시간 거리인 사천이기도 하고요

ClubD: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어요. 어땠어요?
정 캐디: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힘들더라고요. 많은 고객분을 계속 만나야 하고요.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데, 제가 멀티가 잘 안돼서 많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내가 캐디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이겨내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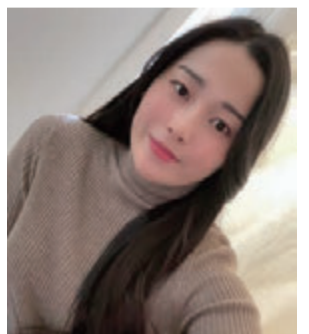
ClubD: 보통 교육은 얼마나 받나요?
정 캐디: 저는 총 3개월 반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울산에 위치한 교육 업체에서 1개월 반 정도 받았고요. 클럽디 거창에서 2개월 등 총 3개월 반 정도 받았습니.

ClubD: 실전에 나가보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나요?
정 캐디: 고객들이 카트에서 골프채를 직접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선제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가져다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ClubD: 골프 캐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정 캐디: 음. 되게 많은데, 아시다시피 골프를 좀 편안하게 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캐디가 없으면 카트 운전도 그렇고, 직접 하셔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ClubD: 개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요?
정 캐디: 고객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객분들 하고 장시간 카트를 타고 계속 붙어 있는데요. 캐디가 너무 딱딱하면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약간 상냥하게 잘 대해 주시고, 원래 알던 분처럼 서비스하면 분위기가 좋고, 재밌게 잘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ClubD: 제일 힘들 때는 언제 인가요?
정 캐디: 고객분들이 내기를 하다 보면 예민해질 때가 있으신데요. 스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거리를 조금만 틀리면 화내실 때도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내기할 때 조금만 덜 예민하시면 좋겠어요. (웃음)



ClubD: 클럽디 거창에서 불편함은 없나요?
정 캐디: 네, 교통도 너무 좋고요.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시내에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ClubD: 클럽디 거창을 소개한다면요?
정 캐디: 경치가 정말 좋은데요. 고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웨스트 코스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쳐봐도 재밌는데, 고객분들도 코스가 재밌다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ClubD: 마지막으로 캐디로서 포부 및 10년 뒤 목표는요?
정 캐디: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경력자 선배들께 노하우를 많이 받아 방문해주시는 고객들이 즐겁게 라운딩하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경기팀장이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아직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했는데, 그때쯤이면 경력도 많이 쌓여있고, 캐디들의 요구사항 등 잘 이해 하면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글 | ClubD MAGAZINE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클럽디 거창 'SOUTH 6번'

클럽디 거창 코스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355m PAR4홀입니다. 티샷은 카트도로 우측 소나무 방향으로 공략하시고 세컨 샷도 그린 우측 끝으로 공략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100M 거리 목부터 그린 앞까지 F/W 폭이 좁아지며 오르막 경사지만 그린 중앙부터는 내리막이라 조금 짧게 온 그린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 우측 법면을 바라 보시면 행운과 장수의 상징인 거북 머리 바위가 있습니다. 감악산의 영험한 기운을 담고 있는 거북 머리 바위에 소원을 비시고, 최고의 스코어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제원 : PAR4홀 355m(화이트 티), 287m(레드 티)

글 | 박희정 클럽디(ClubD) 거창 경기팀장



두 가지 모습을 갖춘 마법의 홀 클럽디 금강 'EAST 6번'

전북 익산 함라산의 산세를 그대로 옮겨 담은 클럽디 금강의 EAST 6번 홀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진 마법 같은 홀입니다. 화이트티에서 플레이 시 짧은 거리에 큰 장애물도 없어 비교적 무난하여 좋은 스코어를 기대해볼 수 있는 홀이지만 블랙티에서 플레이할 때는 워터해저드와 벙커를 넘겨서 도전하거나 우측으로 피해가야 하는 위협적인 홀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홀입니다. 그린공략 시 좌, 우, 뒤에 있는 벙커를 조심하여 그린 중앙으로 공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스제원 : PAR5홀 281m(화이트 티), 239m(레드 티)

코스기록 : 이글 13회 / 버디 2,682회 / 파 31,742회 / 보기 51,105회 / 더블보기 30,371회

글 | 최은숙(ClubD) 금강 경기 마스터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PAR5홀 클럽디 보은 'EAST 7번'

그린이 보이지 않는 좌 도그렉 PAR5 홀입니다. 페어웨이가 평평하고 무난하여 티샷에 심리적 부담이 없으며 플레이어에게 안정감을 주는 홀로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2개의 사이드 벙커만 피한다면 도전적으로 장타를 노릴 수 있는 너그러운 홀입니다. 좌측에 자리 잡고 있는 연못으로 인해 세컨드 샷은 부담될 수 있으며, 우측으로 방향 설정이 잘못된다면 OB가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과감하게 좌측 연못을 넘길 수 있는 샷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린 주변에 큰 공간이 없으므로 정확하고 견고한 어프로치 샷이 필요합니다. 그린의 좌, 우측에 제법 큰 경사가 자리 잡고 있어 신중하게 라인을 읽고 퍼트를 하면 좋은 스코어를 기대해도 좋은 홀입니다.



코스제원 : PAR5홀 485m(화이트 티), 428m(레드 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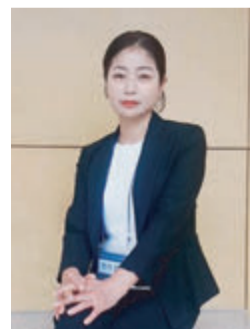
코스기록 : 엘버트로스 1회 / 이글 158회 / 버디 6,349회 / 파 41,685 / 보기 52,926회

글 | 허현숙 클럽디(ClubD) 보은 경기팀장



도전과 열정이 펼쳐지는 클럽디 속리산 'WEST 1번'

클럽디 속리산에서의 도전과 열정이 펼쳐지는 400m, PAR4 홀입니다. 티잉그라운드 구역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측을 관망하면 구병산과 속리산 자락이 멋지게 펼쳐진 뷰가 아름다운 홀입니다. 티샷할 때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홀이라 우측 OB를 조심해야 하며, IP지점은 좌측 카트길에 있는 오크통을 보시면 실수가 나오지 않는 홀입니다. 4~5월에는 티잉그라운드 주위로 붉은 명자나무가 빼곡히 꽃을 피우면 클럽디 속리산의 열정을 한 번 더 감상할 수 있는 멋있고 예쁜 홀입니다.



코스제원 : PAR4홀, 333m(화이트 티), 295m(레드 티)

코스기록 : 홀인원 1회 / 이글 16회 / 버디 2,304회 / 파 66,909회 / 보기 42,979회

글 | 남승미 클럽디(ClubD) 속리산 경기팀장

셀럽들의 트렌드 ‘서핑’, 경남 거창 실내 서핑파크로 오세요!



시원한 바다에서 석양과 함께 즐기는 ‘서핑’.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 사이에 최근 떠오르는 해양스포츠는 바로 ‘서핑’이다. 국내 서핑 인구는 지난 2019년 40만 명 수준에 달하며,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관련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맞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내 서핑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인공 파도를 이용해 날씨와 파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서핑을 배우고 싶은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내륙지방 최초로 경남 거창에 서핑파크가 들어섰다. 오픈 한 지 채 1년도 안 된 거창 서핑파크는 따끈따끈한 최신 시설을 갖췄다. 실내 서핑장과 유아풀장은 물론 클럽핑장, 펜션, 리조트 등 각종 숙박 시설을 갖춰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거창의 유일한 골프장인 클럽디 거창과는 약 30분 거리로, 숙박 프로모션도 누릴 수 있다. 골프와 함께 서핑의 매력을 즐기고 싶다면 한 번 가볼만 한 곳이다.

글 | ClubD MAGAZINE



INFLUENCER INTERVIEW

“골프는 성공의 길을 열어준 보석이죠!”

- 17년 차 개그맨이자 골프 유튜버의 개척자 홍인규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등 소위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채널 개설은 이제 필수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방식이 더이상 브라운관이 아닌 다양한 채널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 속 개그맨 중 골프 유튜버 ‘최초’이자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개그맨 홍인규다. 본격적인 골프 철을 맞아 바쁜 나날을 보내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를 만났다.

Q.ClubD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홍인규 개그맨(이하 홍인규) : 안녕하세요. 유튜버 2년 2개월, 개그맨 17년 차, 개그맨 홍인규라고 합니다~람쥐. 반갑습니다~람쥐. 클럽디(ClubD)에서 저를 찾아주셔서 영광이고요. 클럽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Q.ClubD : 개그콘서트 때 ‘반갑습니다! 람쥐’와 ‘붕어빵’ TV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실까요?

A.홍인규 : 요새는 개그콘서트가 폐지되면서 많은 개그맨이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 골프 유튜버로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잘 돼서 골프 유튜버와 골프 채널에서 많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ClubD :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홍인규 :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다 보니 수입이 많이 필요 하더라고요. 많은 분이 아이를 낳고 현실적인 고민이 커지는 것처럼 저도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선배인 김준호 씨가 ‘성공하고 싶다면 골프를 쳐라!’고 알려줬어요. 당시 ‘내가 골프를 잘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골프채를 잡아보고 배우는데, 의외로 잘 친다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옛날에 춤을 쳤었는데, 춤은 모션이 핵심이잖아요. 보고 따라 하는 것인데, 골프와도 일맥상통했죠. 그 이후부터 골프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Q.ClubD : 홍인규에게 골프란 무엇인가요?

A.홍인규 : 골프는 정말 저같이 술도 잘 못 먹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귀기 좋은 운동이에요. 카메라가 있으면 막 까부는데 제가 의외로 내성적이라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영업이나 친구를 사귀거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사귀기 정말 좋은 연결 다리가 되죠. 5시간 동안 함께 골프를 치다 보면 한두 시간 안에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과도 정말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이 목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다 보니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Q.ClubD : 소문으로는 골프 실력이 싱글 플레이 수준이라고 하시던데요?

A.홍인규 : 골프인들은 베스트 스코어에서 8타를 더하면 본인의 핸디라고 하는데 운 좋게 1언더를 한번 쳤어요. 1언더를 쳐서 8타를 더하면 79인데, 평균 80타 정도는 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주변 분들한테 70대를 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80타를 기준으로 스코어를 낮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Q.ClubD : 지난해 SBS 플러스 ‘러브샷’ 촬영 때 클럽디와 인연이 있으셨죠?

A.홍인규 : 네, 너무 안 좋은 기억이에요. (웃음) 대결에서 졌어요.

골프장이 정말 좋았는데 대결에서 져서 거창 한우를 못 받았습니. 당시 상대 팀장님이 김미현 프로님이셨는데, 당연히 상대가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요. 바로 밀까지 쫓아갔는데 졌어요. 클럽디 거창에 대한 기억은 저처럼 딱딱 치는, 안정적인 스타일에는 유리한 골프장이었는데 역시 김미현 프로님은 제가 못 이기더라고요.

Q.ClubD : 클럽디 거창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은 어땠을까요?

A.홍인규 : 공략을 하는 재미가 있는 곳 같아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골퍼가 자주 방문하면 유리한 골프장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창은 3~4번 더 가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더 방문해서 싱글 한번 쳐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페이드를 연습 중이거든요. 조만간 페이드 연습해서 거창에서 멋지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Q.ClubD : 클럽디의 다른 골프장을 방문하신 경험 있으실까요?

A.홍인규 : 클럽디 금강이 ‘홍인규 골프 다람쥐’ 구독자들이 정말 자주 가는 골프장이고, 모임도 거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람쥐 골프대회를 한번 클럽디 금강에서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코로나가 없으면 클럽디 거창 아니면 금강에서 다람쥐 골프 대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Q.ClubD : 현재 유튜버 골플루언서(골프 +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성공하게 된 비법이 있을까요?

A.홍인규 : 비유한다면 제가 신도시에 먼저 들어간 케이스예요.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처음 들어가고 나니깐 길도 생기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편의점, 주유소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황무지일 때 스크린을 작게 열어서 성공하게 된 케이스죠.



Q.ClubD : 처음 시작하는 게 성공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A.홍인규 : 많죠. 이후 시작한 타 골프 유튜버들은 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는 게 한 달도 안 걸렸는데 저는 거의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시작한 거라 7개월 걸렸어요. 원래 천만 원을 모으기 어려운 것처럼 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올라가더라고요.

Q.ClubD : 골프 유튜버가 엄청 많잖아요? 촬영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시나요?

A.홍인규 : 저는 어떻게 하면 구독자, 시청자들이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을 주로 하며 촬영에 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골프를 직접 치기 보다는 진행을 하고 미숙한 부분을 중간중간 체크하는 역할이에요. 골프장 매너 중 하나가 앞뒤 팀을 잘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뒤에서 밀리지 않게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죠.

Q.ClubD : 경쟁 채널들이 생기는데 괜찮나요?

A.홍인규 : 맛집들 보면 주변 식당들까지 다 잘 되잖아요. 제가 스크린을 하나 차렸더니 김구라 선배님과 변기수, 장동민 씨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작은 신도시가 되어서 명감도 많이 오르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좋아지고 있어서 저는 경쟁 채널이라기보다 다 같이 잘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Q.ClubD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홍인규 :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다 보니 똑같은 매치와 대결을 콘텐츠로 진행하는 많은 채널이 생기니 골프 채널도 식상해지고 있어요. 골프 드라마나 골프 예능, 콩트 등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해서 남들보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클럽디가 퍼블릭 전문 골프장인데도 회원제 급의 고급 집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퍼블릭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원제급의 골프장을 즐길 수 있도록 멋진 클럽디로 변장하시길 바라구요, 홍인규 골프 TV도 꼭 다시 한번 찾아가서 클럽디의 멋진 뷰를 거창의 거창한 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꼭 촬영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클럽디 파이팅! 클럽디가 다람쥐의 D랑 같더라고요. 클럽디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

글 | ClubD MAGAZINE

(주)이도 최정훈 대표이사, 포브스(Forbes) 39인의 리더로 소개

-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의 숙명' 자필 에세이 게재

2021 ESSAY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 최정훈 대표이사가 글로벌 경제매체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39인의 리더로 소개됐다. 포브스 코리아는 2021년 1월호에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기업가 등 39인의 오피니언 리더의 생각을 에세이 형태로 보도했다. 이번에 소개된 리더에는 최 대표 외 박지웅 패스트트랙 아시아 대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등 각 분야의 젊은 창업가가 포함됐다. 최 대표는 에세이 주제로 최근 기업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꼽았다. 에세이는 'ESG를 향한 기업의 숙명'이라는 주제로 게재됐다.

포브스 코리아에 따르면 최 대표는 "기업은 재무적 성과만 최고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을 배려하고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그렇지 못한 비즈니스는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며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이 3가지 요소는 이제 기업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ES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비즈니스는 피하고, 그렇지 못하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기업을 많은 사람이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브스 코리아는 또한, "기업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이바지하는 사회적(Social) 가치를 실현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수 구성원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 즉 임직원에서 주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구축해야만 결국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글을 게재했다.

포브스 코리아는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자는 기업 특성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적절한 수익, 직원들에게는 보상과 보람, 그리고 사회적 발전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삶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최정훈 대표이사의 에세이를 소개했다.

글 | ClubD MAGAZINE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향한 기업의 숙명

최정훈 이도 대표

사실 'Begin Again'이란 문구가 경영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경영자는 언제 어디서든, 매 순간 발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경영 여건 속에서 이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Begin Again'이란 주제가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고 매일 더 나은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는 고민이자 다짐이라 생각한다. 이를 굳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이 3가지 요소는 이제 기업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기업은 재무적 성과만 최고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을 배려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지 못한 비즈니스는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 많은 대기업은 물론 세계적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맞춰 기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글로벌 화두로 환경문제가 중요해진 가운데 기업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비즈니스는 피하고, 그렇지 못하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이런 기업을 많은 사람이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변화된 움직임들이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허무하게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기 위해 이바지하는 사회적(Social)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소수 구성원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 즉 임직원에서 주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구축해야만 결국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자는 기업 특성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적절한 수익, 직원들에게는 보상과 보람, 그리고 사회적 발전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삶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내게도 주어진 과제다.

지속가능한 경영, 나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영자로서 매 순간 노력할 것이다. 2021년 신축년, 모든 것을 새로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ESG를 기업의 주요 경영 방향으로 삼아 다시 시작하고 도약하는 'Begin Again'을 만들고 싶다. We, Yido, are here for your greater life!

한국의 유산, '청정 제주'의 지속과 보전 위해 (주)이도 나서 폐기물 처리 전국 확대

- 의성 쓰레기산 이어 제주 폐기물 문제 해소 기여... 일 2800t 폐기물 처리 사업장 인수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 (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각종 폐기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유산이자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지킴이로 나선다. 국내 톱 수준의 산업폐기물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정지역 제주도의 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주)이도는 지난 3월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인 동양 및 건자재 업체 유창토건, 동화산업 등 3개사에 대한 인수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아스콘 제조·판매업, 자회사인 유창토건은 하루 160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아스콘을 활용해 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화산업은 산업폐기물 처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하루 처리 규모가 1200톤이며,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써 (주)이도는 제주 지역에서 산업폐기물을 일 2800톤 처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같은 폐기물 처리 규모는 제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도는 향후 이번 제주 지역에 이어 충북 지역에 폐기물 처리 사업장 및 매립장 투자에 나서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까지 이어지는 산업폐기물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폐기물 사업장 운영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도는 현재 지난 2018년부터 국내 톱 수준의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인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환경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이도의 운영 이후 수도권 환경의 하루 폐기물 처리 규모는 이전보다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한, 경기도 및 전라도 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 소각장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도는 ESG 경영 활동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문제가 됐던 20만톤 규모의 '의성 쓰레기산' 처리 문제에도 동참했다. 의성 쓰레기산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2월 중순 전량 처리가 완료됐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폐기물 분야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이라며 "폐기물 처리 사업장 운영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ESG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ClubD MAGAZINE

‘ESG 경영’의 본격화와 전망



최남수 서정대 교수(전 YTN 대표이사)

최근 들어 ESG가 경제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UN책임투자원칙, PRI에서 나온 개념이다. 6개 원칙으로 이뤄진 PRI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ESG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투자 대상 기업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SG의 세 가지 요소 중 ‘환경(E)’은 공기와 수질 오염, 폐기물과 위험물질 관리, 재생에너지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사회(S)’는 지역사회와 소통, 인권, 근로 관행, 제품의 안전, 고객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주시한다. ‘지배구조(G)’는 이사회 구성, 투명성, 뇌물과 부패, 주주 관계 등 리더십과 내적 통제를 평가한다. 한마디로 경영과 생산과정 전반에서 친환경 운영을 하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며,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이라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ESG는 ‘하면 좋은’ 정도의 과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왜 가시화되고 있을까?

먼저 팬데믹을 계기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둘째, 지구 온난화를 이대로 두면 커다란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해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온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을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7 Sustainable Development



- 모든 UN회원국이 2015년에 채택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년 파리기후협약 합의)
-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평화와 번영 지향
- 매년 지속개발 고위포럼에서 SDGs 진행 상황 점검

특히 ESG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재무분석을 통해 탐지되지 않는 기업의 리스크를 ESG 요소에서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결국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ESG가 결국은 투자 또는 재무 리스크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권 침해나 뇌물 제공 등 의심스러운 내부 관행이 있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돼 기업 경영이 흔들리고 기업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행보는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난해 투자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핵심 요소로 보겠다고 선언하고 연말까지 기후 변화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 내용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올해 초에 보낸 서한에서는 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SG 평가 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후 변화 정책 공기 및 수질 오염 삼림 벌채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폐기물과 위험물질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지역사회 소통 인권 근로 관행 제품 안전 데이터 보안과 포용 고객 관계 윤리적 공급체인 소싱	경영 구조 경영진 보수 이사회 구성 사업의 진실성 투명성 뇌물과 부패 로비 내부고발자 제도 주주 관계

자료 : ESG RATINGS(MILKEN INSTITUTE)

국내외에서 관련 제도 도입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SG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ESG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면에서 해외의 움직임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지난 2014년에 기업의 비재무 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데 이어 2018년부터는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도 기후 변화 등 ESG에 관련된 기업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ESG는 이처럼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잘 활용할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ESG를 경영에 잘 반영하는 기업들은 실적도 더 양호하고 주가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발주 사업을 더 수주하고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아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SG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입어야 하는 ‘드레스코드’같은 조건이 됐다. ‘ESG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불량기업으로 여겨져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치사슬 전반에 ESG를 잘 반영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실적 면에서 돋보이는 성적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SG가 성장과 생존을 위한 기업 경영의 본류로 자리 잡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뛰놀던 편안한 목가적 풍경과 내리막의 아일랜드 그린을 갖춘 '클럽디 보은'
 속리산과 구병산의 원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라운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금강과 함라산의 절경과 함께 세계의 유명 골프장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멋진 코스를 갖춘 '클럽디 금강'
 감악산의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 거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종착지인 클럽디의 차별화 된 서비스와 함께 골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CLUBD X GOLFZON

클럽디거창 코스 오픈기념 이벤트

지금껏 스크린에서 즐기지 못한 클럽디거창코스
이제 골프존에서 즐기고 푸짐한 선물받아가세요!!

이벤트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5월 31일(월)

EVENT 01

필드-스크린 최다 라운드 시상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필드-스크린
각 최다 라운드 시상

아이언세트 3set
필드 참가 최다상

**팀 라운드 3장
카드피 면제권 10장**
스크린 참가 최다상

EVENT 02

스크린 즐기고 필드에서 선물받자!

스크린 라운드 후 필드 라운드 시
참가 기념품 제공

**티스캐너
10,000원 쿠폰**

**커피
무료이용권(-8월31일)**

EVENT 03

Screen Road to ClubD 스크린 로드 투 클럽디

클럽디 보은/속리산/금강/리버/거창
스크린 라운드 완료시 상품 제공

**추첨을 통한
팀라운드권 3명**

NOTICE

- 최다 라운드 시상 및 스크린 로드 투 클럽디 상품은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 확인 후 개별 연락 후 배송됩니다.
- 스크린 즐기고 필드에서 선물 받자 이벤트는 클럽디 거창 내장 시 현장에서 스크린 기록을 증명하셔야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소진 시 사전 공지 후 마감 진행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ClubD 우수캐디



양민아
ClubD보은(경력12년)



조현욱
ClubD속리산(경력10년)



함계순
ClubD금강(경력15년)



강효령
ClubD거창(경력13년)

프라이빗 이동서비스, 무브

골프장부터 출장까지 이동이 필요할 땐, 무브
특별한 할인혜택으로 KTX예약도 편리하게!

무브골프

문의: 1877-2025

- 일행 모두 DOOR TO DOOR 서비스
- 라운딩 후 출음운전 걱정없이 안전하게!
-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다함께!

무브골프

무브비즈니스

문의: 1877-2024

- 여러 장소도 DOOR TO DOOR 서비스
- KTX + 무브로 전국 어디든 편안하게!
[KTX 최대 50%할인, 요일/시간대별 상이]
- 업계 가격 경쟁력 최고 수준!

무브 8시간 185,000원 부터 시간당 20,000원 / 1km 200원
 타사 8시간 217,000원 부터 시간당 27,000원 / 1km 300원

RYDEL Health Confidence

하루1정 클레스테롤과 혈압을 동시에!

레이델 폴리코사놀20



제조원: Rainbow and Nature Pty Ltd (제조국: 호주)
 판매원: (주)레인보우엔네이처코리아 | 건강기능식품

제주를 담은 제주맥주



BREWED IN JEJU, KOREA JEJU BEER COMPANY

클럽디 보은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안내 info_boeun@clubd.com 전화 043-540-8888
	예약 booking_boeun@clubd.com 팩스 043-540-8889
클럽디 속리산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상장로 230
	안내 info_songnisan@clubd.com 전화 043-540-8000
	예약 booking_songnisan@clubd.com 팩스 043-544-9600

클럽디 금강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안내 info_geumgang@clubd.com 전화 063-720-7700
	예약 booking_geumgang@clubd.com 팩스 063-720-7799
클럽디 거창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안내 info_geochang@clubd.com 전화 055-945-2222
	예약 booking_geochang@clubd.com 팩스 055-945-6060

